

취한 영국

정서현**

윌키 콜린스의 『월장석』에 나타난 반-과학의 집단성*

초록 이 논문은 윌키 콜린스의 『월장석』이 그리는 주요 사건 및 그 해결 과정에서 “취한 상태”가 가지는 중요성에 주목해 당대 영국 제국 내부에서 부상하던 의과학 담론과 소설 속 설명되지 않는 몸의 경험 사이의 긴장 관계를 분석하고, 그를 기반으로 추리소설이라는 장르가 소환하는 얇에 대한 기대의 역사성을 밝힌다. 최초의 추리소설이라 일컬어지는 『월장석』은 제국주의적 수탈로 획득한 “신들린” 보석이 영국의 저택 안에서 도난당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 관점에서 불완전하게 서술해 서사적 긴장감을 조성한다. 이 논문은 작품의 서사적 불안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아편의 불가해한 작용에 있다는 점, 그리고 추리 과정에서 다양하게 “취해 있는” 인물들이 탐정으로 활용된다는 점이 과학과 영국 제국의 불화를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특히 작품 속 의학 실험의 실패와 사건 설명의 불완전성에 대한 집단적 용인은 영국의 제국주의적 욕망과 그 한계, 더 나아가 인식론적 병리 상태를 드러낸다. 『월장석』에 나타난 과학과 얇의 복잡한 구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추리소설이라는 장르가 제공하는 사건 해결의 지적 만족감이 19세기 영국의 반-과학적 집단 정서와 의과학적 얇 사이의 갈등을 감추고 있으며 그 사회적으로 함의된 인식론적 혼란의 근간에 영국 제국의 역사가 있음을 밝힌다.

주제어 윌키 콜린스, 『월장석』, 제국, 아편, 취한 상태, 집단성, 반-과학, 의사에 대한 불신, 얇, 19세기 추리소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한국과학기술원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조교수

1. “취한 상태”(being under the influence)의 중요성

윌키 콜린스(Wilkie Collins)의 1868년 소설 『월장석』(*The Moonstone*)의 핵심 갈등인 다이아몬드 도난 사건은 아편에 관한 에즈라 제닝스(Ezra Jennings)의 경험과 지식이 없었다면 풀릴 수 없었던 미스터리로 그려진다. 사건 발생 당일 베린더(Verinder) 가문의 저택 안에 있었던 의사 캔디 씨(Mr. Candy)의 조수 제닝스 씨는 독자와 주인공 프랭클린 블레이크(Franklin Blake)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약물을 활용한 과학 실험을 통해 블레이크 씨의 결백을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블레이크 씨가 아편에 취한 상태로 자신도 모르게 보석을 훔쳤다는 설명은 도난 사건 전체의 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소유한 자에게 저주를 가져온다는 전설의 인도 다이아몬드를 훔쳐 베린더 양(Miss Rachel Verinder)에게 선물한 제국주의자 삼촌 존 헨캐슬(John Herncastle), 블레이크 씨가 무의식중에 훔친 보석을 가로챈 에이블화이트 씨(Mr. Ablewhite), 그리고 이 보석을 되찾기 위해 위장한 채 영국으로 와 베린더 저택을 맴도는 세 명의 인도인 등 보석 도난 사건을 둘러싼 여러 행위자들 사이 책임의 정도와 결백의 정도는 작품이 끝날 때까지도 불분명하게 남아 있다. 추리소설이라는 장르가 소환하는 사건 해결 과정의 인지적 만족감을 아편의 불가해한 작용에 위탁한 이 작품의 서사적 선택은 아편에 대한 당대의 사회적 기대가 내포한 반-과학적 성격과 그 기대의 제국주의적 뿌리를 드러낸다.

이 논문은 아편의 영향을 받아 자신도 모르게 보석을 훔쳤다는 설명이 블레이크 씨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의심 없이 채택되는 작품의 핵심(비)논리에 숨겨진 영국 제국의 욕망과 부상하는 과학 담론 사이의 본질적 갈등 관계를 탐구한다. 『월장석』에 대한 논의에서 제국과 타자화의 기전은 언제나 그 중심에 있었다. 도난당한 보석이 영국의 제국주의적 폭력의 산물이고, 식민지에서 생산된 중독성 물질이 작품 전체를 지배하며, 장르 비평의 맥락에서도 타자의 특징을 알아채고 경계하는 것이 추리소설의 안전

한 결론에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제시되어 왔으니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작품에서 동양적 함의가 짙은 아편을 경유해 도난 사건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누구보다 영국인다운 영국인 블레이크 씨가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일시적으로 타자화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영국을 감염시키지 않으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만족스러운 제국적 추리다. 아편의 문화사적 역할은 이 작품의 독해에 특히 중요한데 수잔 지이거(Susan Zieger)가 지적하듯 영국 소설의 역사에서 아편은 한 번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거나 객관적 과학의 영역에만 머무르는 물질이었던 적이 없으며, 중독 역시 그 자체로 민주주의적 자유, 19세기적 주체의 형성 등에 대한 비평으로서 역사적 함의가 복잡한 개념이다.¹ 작품 속 아편과 오리엔탈리즘, 아편과 제국주의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² 이 초기 추리소설에서 콜린스가 제공하는 집단적 인식론에 관한 통찰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물에 취한 상태를 결백의 근거로 사용한 서사적 장치를 인종주의나 문화적 타자화로 해석하기에 앞서 당대의 의과학적 지식에 대한 인물들의 정서적 반응과 연결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소설 속 사건 해결 과정에서 과학의 역할을 분석해 초기 추리소설의 발달과 불가해한 인간 신체를 다루는 과학인 의과학의 관계를 영

1 “a critique of democratic freedom, liberal subjectivity and self-making as personified in the nineteenth century, by white, middle class men,” Susan Zieger (2008), *Inventing the Addict: Drugs, Race, and Sexuality in Nineteenth-Century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p. 10.

2 Barry Milligan (1995), *Pleasures and Pains: Opium and the Orient in Nineteenth Century British Culture*, Charlottesville: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Ian Duncan (1994), “The Moonstone, the Victorian Novel, and Imperialist Panic,” *Modern Language Quarterly* 55(3), pp. 297–319; Susan Zieger (2011), “Opium, Alcohol, and Tobacco: The Substances of Memory in *The Moonstone*,” in *A Companion to Sensation Fiction* (ed. by Pamela K. Gilbert), pp. 208–219. p. 10; Adam Colman (2019), *Drugs and the Addiction Aesthetic in Nineteenth-Century Literature*, London: Palgrave Macmillan; Zieger (2022), “Opium and Logistical Nightmares,” *English Language Notes* 60(1), pp. 122–138 등 참조.

국 제국의 맥락 안에서 역사화한다. 특히 작품 속 과학 실험의 실패와 그 설명의 불완전성에 대한 집단적 용인을 19세기 말의 집단적 반-과학의 정서로 설명하고, 앎의 성격에 따라 위계를 설정하며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종류의 앎을 병리화하려는 영국의 제국주의적 욕망과 그 한계를 밝힌다. 그를 통해 이 초기 추리소설이 제공하는 사건 해결이라는 지적 만족감 뒤에는 집단적 합의의 형태로 작동하는 반-과학적 경향과 의과학 사이의 갈등이 감춰져 있으며, 그 근간에는 질병을 타자화하는 동시에 “취한” 상태에서 서만 가능해지는 특수한 앎에 의존하는 제국의 모순된 과학관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다.

『월장석』은 신비로운 동시에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인도산 보석에 처음부터 “취해 있는” 소설이다. 이 논문이 주목한 것은 월장석의 미신적인 영향력에 대한 비합리적 기대와 아편 중독자만이 영국 신사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추리 서사의 아이러니가 교차하는 지점에 “취한 상태”(being under the influence)가 있다는 사실이다. “취한 상태”는 물론 술, 아편, 상황이나 인물 등 무엇에 취해 있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함의를 가지며 각각의 경우마다 개인적 주체성과 판단력이 영향받는 정도 및 사회적 평판이 달라지는 변덕스러운 개념이다. 하지만 콜린스가 “영향”(influence)이라는 단어로 연결해 작품 곳곳에 배치한 다양한 인지적 이상 상태를 묶어서 살피는 독해는 당대의 앎이 형성되는 과정의 특이점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월장석』은 등장인물들이 어떤 대상으로부터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영향을 받은 상태,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 새로운 정신의 상태에 접속할 가능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작품의 제목이자 핵심 소재인 월장석은 도입부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작품 전체를 “취한 상태”로 만드는 강력한 장치로 작동한다.

알려진 가장 오래된 전통에서는 이 보석이 달을 상징하는, 네 개의 팔을 가진 인도 신의 이마에 새겨져 있었다고 묘사한다. 그 독특한 색깔 때문에,

그 보석이 스스로가 장식하고 있는 신의 **영향을 느끼고 있다고** 표현한 어느 미신 때문에, 그리고 또 달이 차고 기우는 데 따라 광채를 키웠다 줄였다 하는 특징 때문에 그것은 인도에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려진 바로 그 이름을 얻었다—월장석이라는 이름을.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도 비슷한 미신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인도에서처럼 신에게 바쳐진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흔히 생각되는 질 낮은 반투명의 보석에 적용되는 것이었고, 후자의 보석에도 우리 시대의 수집가들에 까지 같은 이름으로 알려진 그 이름이 붙여졌다.³ (볼드체 필자 강조)

서술자의 설명에 따르면 월장석이라는 이름은 그 생김새뿐 아니라 그것이 가진 강력한 신비로운 기운에 대한 집단적 믿음에 근거해 붙여진 이름이며, 그 이름은 시대와 국가 경계를 넘어 전해진다.⁴ 물론 그중 가장 귀한 월장석은 인도 신의 이마를 장식했던 다이아몬드이고, 그 보석의 영향력

-
- 3 “The earliest known traditions describe the stone as having been set in the forehead of the four-handed Indian god who typifies the Moon. Partly from its peculiar colour, partly from a superstition which represented it as *feeling the influence* of the deity whom it adorned, and growing and lessening in lustre with the waxing and waning of the moon, it first gained the name by which it continues to be known in India to this day—the name of THE MOONSTONE. A similar superstition was once prevalent, as I have heard, in ancient Greece and Rome; not applying, however (as in India), to a diamond devoted to the service of a god, but to a semi-transparent stone of the inferior order of gems, supposed *to be affected by the lunar influences*—the moon, in this latter case also, giving the name by which the stone is still known to collectors in our own time.” Wilkie Collins (1868), *The Moonstone*, 201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2. (이탤릭체 필자 강조)
- 4 콜린스의 작품 속 다이아몬드의 실제 모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인도회사가 빅토리아 여왕에게 1850년에 선물한 코이누어 다이아몬드(The Ko-Hi-noor Diamond)와 그것이 수정궁(The Crystal Palace) 박람회에서 누렸던 인기가 영국의 제국주의적 통제력에 관한 반례라고 주장하는 논문으로 Paul Young (2007), “‘Carbon, Mere Carbon’: The Kohinoor, the Crystal Palace, and the Mission to Make Sense of British India,” *Nineteenth-Century Contexts* 29(4), pp. 343-358.

에 관한 미신은 끈질기게 보석을 따라다닌다. 이 보석이 살인을 포함한 폭력으로 얻어졌다는 사실에 더해 인도에서 미신이 형성된 과정이 소개되며 월장석의 반제국주의적 함의는 분명해진다. 달의 신은 인도에서 유일하게 모하메드의 침략을 피한 신이었으며 브라만들은 이 신이 이마에 박힌 다이아몬드로부터 성스러움을 내뿜다고 믿고 모셔 왔다.⁵ 따라서 “이 성스러운 보석에 손을 대는 모든 주제님은 인간과 그의 집안 전체는 물론 미래에 그의 이름을 가지게 될 모든 자까지 확실한 불행을 겪게 될 것”⁶이라는 신의 예언은 제국주의적 수탈 위에 지어진 이 소설 전체를 지배하고, 베런더 양이 월장석을 선물로 받기도 전에 독자들은 이 예언의 영향을 받는다. 보석과 함께 영국에 침투한 월장석의 저주는 그것을 보는 모두의 인지 능력을 교란하는 방식으로 발현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서술자 중 한 사람인 집사 가브리엘 베테리지(Gabriel Betteredge)는 이 다이아몬드를 바라보면 “그 보석의 깊은 노랑이 보는 자의 눈을 빨아들여 다른 무엇도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며, 두 손가락으로 쉽게 집어들 수 있는 이 작은 보석이 이토록 “불가해한”(unfathomable) 특징을 가진다는 사실에 감탄한다.⁷ 즉 이 보석에 “취한” 인물들은 세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거나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이 작품의 전제이자 저주다.

『월장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영향력의 작동은 신비로운 이국의 보석이나 그를 포괄하는 오리엔탈리즘적 대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대의 인식 능력과 지적 활동반경을 변형시키는 힘은 영국 가정 내의 일상적인 상

5 “Of all the deities worshipped in the temple, the moon-god alone escaped the rapacity of the conquering Mohammedans,” Collins (2019), p. 2.

6 “predicted certain disaster to the presumptuous mortal who laid hands on the sacred gem, and to all of his house and name who received it after him,” Collins (2019), p. 2.

7 “When you looked down into the stone, you looked into a yellow deep that drew your eyes into it so that they saw nothing else,” Collins (2019), p. 60. 르위스 로버츠(Lewis Roberts)는 이 보석을 작품의 중심에 뒀으로써 작가가 이성과 객관적 진실에 대한 기대를 비판한다고 말한다.

황에서도 발휘된다. 블레이크 씨는 목걸이 도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사건이 일어난 밤 집 안에 있었던 여자 하인들로부터 정보를 얻으려 하는데, 이때 무엇보다도 “차주전자의 영향력”(the influence of the teapot)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⁸ 그는 “여성의 혀에 차 한 방울은 꺼져가던 등에 한 방울의 기름과 같다”고 믿는 인물이며 그 영향력에 “취한”(under the influence) 사람들은 그에게 새로운 앎을 제공할 것이라 확신한다.⁹ 실제로 이 전략은 어떠한 과학적 수사보다 즉각적인 효과를 보인다. “차주전자에 대한 의존”(reliance on the tea-pot)을 통해 그는 사건 수사를 의뢰받은 명탐정 커프 경사(Sergeant Cuff)가 긴 수사를 통해 알아낸 것 이상을 30분 만에 얻어 낸 것이다.¹⁰ 이 응접실의 작동방식, 그 설명 불가능한 매혹에 대한 블레이크 씨의 이해는 그를 소문난 수사 전문가 커프 경사보다 더 유능한 탐정으로 만든다. 콜린스가 도난 사건의 수사 과정 중 특히 새로운 앎을 발견하는 순간에 “영향”이라는 단어를 반복해 활용한다는 사실은 매혹과 취한 상태의 밀접함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비정상이라 여겨지는 “취한 상태”가 실은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앎의 형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입증한다. 이어지는 논의는 작품을 지배하는 여러 “영향력”을 활용한 추리가 과학적 지식의 성취로 그려지기보다는 영국 사회의 집단적 인식 구조를 드러낸다는 점에 주목해, 약물에 취했을 때 오히려 사회적 구조에 포섭되지 않은 개성적 개인이 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콜린스의 서사가 앎과 무지, 과학과 미신, 그리고 개인과 국가의 복잡한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망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월장석을 포함한 제국주의 폭력의 상징들이 영국을 취하게 만드는 힘과 취한 상태에 대한 의학 지식이 충돌하는 양상이 추리소설이라는 장르의 지적 기대와 만나 만들어진 기묘한 문화사적 산물로 이 소설을 읽는 시도다.

8 Collins (2019), p. 113.

9 “a drop of tea is to a woman’s tongue what a drop of oil is to a wasting lamp,” Collins (2019), p. 113.

10 Collins (2019), p. 113.

2. 아편, 질병으로서의 중독, 추리소설

추리소설 『월장석』 속 사건 해결의 핵심이 취한 상태(에 대한 이해)라면, 이 소설에서 취한 상태를 유발하는 여러 물질과 인물과 상황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아편(opium)이다.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아편은 이미 널리 사용되는 약물이었다.¹¹ 작품 속에서 제닝스 씨는 아편을 “그 전능하고 자애로운 약물”이라 부르며,¹² 작품 출간 전 원고에서 콜린스는 아편에 대해 “인류를 위해 이루어진 화학적 발견 중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¹³ 하지만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실감했던 아편의 유용함과 별개로 콜린스가 작품 활동을 하던 당시에는 아편의 예술적 잠재력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한 아편의 긍정적인 문화적 함의는 사라져 가고 있었다. 아편은 토마스 드 퀴시(Thomas De Quincy) 등 낭만주의 작가들이 두루 향유한 취미로 “고귀한 실험가”(noble self-experimenter)의 친구이자 문학적 천재성을 끌어내는 신비로운 물질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¹⁴ 19세기 중반 이후 그 인상은 희미해졌고, 사용자 누구에게나 병리 상태를 유발하는 위험한 물질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낭만주의 시기에 아편 중독이나 약물 남용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19세기 중반 찰스 디킨즈(Charles Dickens)가 아편굴(opium den)을 도덕적 타

11 Milligan (1995), p. 22.

12 “that all-potent and all-merciful drug,” Collins (2019), p. 367. 여기서 사용되는 “전능한”이라는 수식은 물론 종교적인 색채를 짙게 띠고 있다.

13 “the greatest chemical discovery ever made, for the benefit of mankind,” Francis O’Gorman (2019), “Explanatory Notes,” *The Moonston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508.

14 드 퀴시는 이 소설에서 직접적인 참고 대상으로 소환된다. 제닝스 씨가 서술하는 소설의 네 번째 증언 부분은 사실주의 소설의 형식을 비교적 충실하게 따르는 전반부에 비해 환상적이며 끔찍한 꿈 이야기와 꿈꾸는 자의 고통을 1인칭으로 서술해 드 퀴시의 『한 영국 아편 중독자의 고백』(*Confessions of an English Opium Eater*)을 연상시킨다. 제닝스 씨는 아편의 작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블레이크에게 이 책을 직접 건네며 읽어 볼 것을 권한다.

락의 근원으로 묘사한 이미지가 대중화되는 등 부정적 인상이 구체화되면서 19세기 중후반에는 약물 사용의 도덕적이고 병리학적인 함의들이 분리되지 않은 채 발달하기에 이르렀다.¹⁵

도덕적 함의의 강조는 빅토리아시기의 아편에 대한 경계가 개인 신체의 건강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 구성원의 자격 기준과 관계된 것임을 드러낸다. 그러한 점에서 중독의 질병화는 제국주의적 위계를 강화하는 오리엔탈리즘적 사고, 특히 타자화의 기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도입부에서 언급했듯 아편이라는 소재를 직접 활용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배리 밀리건(Barry Milligan)은 그의 저서 『쾌락과 고통: 19세기 영국 문화에서 아편과 동양』에서 19세기에 중독은 “의지의 질병이자 병인 동시에 악덕”이었다고 말한다.¹⁶ 특히 빅토리아시대 합리적 개인의 강한 의지가 진보를 가져오는 핵심 동력으로 장려되었던 사실을 고려하면¹⁷ 아편에 중독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독립적 개인이기를 포기했거나 의지가 박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더 나아가 동양에서 온 물질이 영국인의 정신과 신체에 침투했다는 문화적 상상력은 중독자를 도덕적으로 열등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타자화된 존재로 만든다. 지이거에 따르면 이러한 대중적 상상력의 반영이자 근원인 소설에서 “술주정뱅이와 중독자들은 도덕적으로 한계가 있는 인물을 보여 주기 위해 19세기 소설의 가장자리를 떠돌고 있었고,” 그들의 존재가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교훈은 명백했다.¹⁸

하지만 아편으로 상징되는 위협과 불안은 서사의 가장자리에만 머물지

15 디킨즈의 매거진 *All Year Round*에 실린 아티클 “Lazarus Lotus Eating”과 그의 1870년 소설 *The Mystery of Edwin Drood*가 아편술을 상세히 묘사한 대표작으로 꼽힌다.

16 “addiction ... was a ‘disease of the will,’ as much a vice as an illness,” Milligan (1995), p. 25.

17 “strength of will was promoted as a central force in the achievement of progress,” John R. Reed (1989), *Victorian Will*, Athens: Ohio University Press, p. 84.

18 “drunkards and addicts ... tended to occupy the margins of nineteenth-century novels, often as spectacles of moral self-limitation,” Zieger (2011), p. 14.

않았다. 빅토리아 시기 약물 사용과 그에 수반되는 병리적 신체 현상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주제였다. 중독에 관한 콜린스의 깊은 관심은 『월장석』의 주요 인물 중 대부분이 중독 문제를 겪고 있음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 저주가 걸린 월장석을 레이첼 양에게 악의적으로 선물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죽음을 불러온 가문의 악당 제국주의자 현캐슬 삼촌은 친지들로부터 버림받은 채 외롭게 아편에 취해 죽음을 맞은 것으로 암시되고, 제닝스 씨와 베린더 부인(Mrs. Verinder)은 신체의 통증 때문에 아편의 진통 효과 없이는 일상을 견딜 수 없으며, 훌륭한 영국 신사여야 마땅한 주인공 블레이크 씨 역시 심각한 담배 중독자다.¹⁹ 이처럼 다양한 중독자들이 서사적 존재감을 뽐내지만 『월장석』에는 중독(addiction)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²⁰ 약물사학자 버지니아 베리지(Virginia Berridge)는 중독을 19세기적 관념으로 정의하며 이 시기에 중독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발견되었거나 창조되었다고 설명한다.²¹ 물론 메리디스 콘티(Meredith Conti)가 주장하듯 이전 세기에도 약물에 대한 장기적 의존이라는 관념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와 같은 상태를 중독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관념화하며 치료할 추동이 훨씬 적었다는 점이 중요하다.²² 중독을 사회적으로 질병화하고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을 가려내 치료해야 한다는

19 그는 베린더 양과 결혼하기 위해 당장 담배를 끊는 낭만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월장석 도난사건 이후 다시 원래의 습관에 빠지고 만다.

20 중독자라는 단어는 19세기 후반에야 등장한다. 옥스포드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 따르면 알코올중독(alcoholism)이 처음으로 사용된 기록은 1848년이고, “중독자”(addict)를 명사 형태로 처음 사용한 것은 1899년으로 알려져 있다. Colman (2019), p. 4.

21 “it was then that addiction was either discovered or created,” Berridge (1990), “Dependence: Historical Concepts and Constructs,” *The Nature of Drug Dependence*, eds. Griffith Edwards and Malcolm Lad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2 “while chronic drug use was certainly ideated in previous centuries, there was far less impetus to define, conceptualize and treat addiction,” Meredith Conti (2018), *Playing Sick: Performances of Illness in the Age of Victorian Medicine*, London: Routledge, p. 113.

의식을 추동한 것이 바로 제국의 불안이며,²³ 『월장석』은 중독과 중독자가 특정한 사회문화적 의미로 고착되기 이전의 경험적이고 인식론적인 혼란을 다층적으로 다룬다. 중독의 실질적이고 의과학적인 내용보다 중독이 수반하는 특수한 인지적 상태의 사회적 구성력에 더 주목한 것이 바로 이 작품의 역사적 통찰이다.

당대 아편과 중독이 가진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때 콜린스 작품의 특이한 점은 취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인물들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 특별한 앎을 가진 인물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특히 이 작품이 추리소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건의 해결에 정신 착란 상태 및 그 상태에서만 알아낼 수 있는 객관적 진실 이상의 앎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월장석』은 특히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앎의 종류가 바로 그 사회의 정체성이며 앎의 위계야말로 경계 형성의 욕구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인식론 기반 정치 역학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예를 들어 이 작품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타자인 인도에서 온 브라만 사제들을 포함해 피부색이 어두운 인물들은 보통의 영국인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 상상된다. 브라만들이 가지고 다니는 “검은 액체가 든 병”(the bottle of black liquid)이 무엇인지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지만 영국인들은 그것이 저 수상한 인물들을 “신통력이 있는 상태”(a clairvoyant state)로 만들 수 있는 묘약이라 여긴다. 그 동양의 약물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 상상되는 정신적 능력은 두려움의 대상이면서 호기심과 매혹의 대상이고, 매혹되면서도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다. 제닝스 씨를 묘사할 때 “집시와 같은 어두운 피부”(complexion ... of a gipsy darkness)를 강조하고 “고대 동양에 살던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되지만 서

23 조에리의 독해는 이 작품에서 식민지인들의 역침입에 대한 제국주의적 불안을 강조하는데 질병화의 기전 역시 침입한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제거해야 한다는 강박과 통한다. 조에리(2002), 「타자성에 대한 불안: 『문스톤』, 『근대영미소설』 9(2), pp. 109-110.

양의 최신 인종들에게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섬세한 모양과 입체감 표현을 보여 주는 코”를 가지고 있었다고 타자화하는 것도 그를 특징짓는 아편에 관한 앎과 맞물려 있다.²⁴ 제닝스 씨가 영국의 탐정들은 풀 수 없었던 월장석의 미스터리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영국의 경계 안에 완전히 속하는 인물이 아니며 취한 몸과 특수한 앎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이다.

숨은 정보를 찾아내고 조합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추리소설의 전통적 주인공 탐정은 제국을 수호하는 존재로, 19세기 후반에 특히 발달한 문학적 인물 유형이자 영국적 남성성의 상징이다. 지이거는 소설 속 탐정이 “영국의 제국적 통제력, 박식함, 대항 문화적 남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능”했다고 설명하고,²⁵ 콜린스의 소설에서도 탐정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공적으로 활동하는 인물은 모두 남성이다. 하지만 이 작품의 탐정들은 추리에 실패한다.²⁶ 제닝스 씨라는 예외적 인물이 유일하게 이 제국적 통제력과 박식함을 보여 주도록 설계된 것은 영국 제국의 남성적 권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경계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흥미롭다. 결정적으로 사건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것을 블레이크 씨에게 설명해 주는

24 “His nose presented the fine shape and modelling so often found among the ancient people of the East, so seldom visible among the newer races of the West,” Collins (2019), p. 312.

25 “Detectives in novels have developed to function as a symbol of “countercultural masculinity, erudition, and British imperial command,” Zieger (2008), p. 7. 추리소설이라는 장르에서 대표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중독자는 설록 홈즈다. 하지만 그의 약물 사용은 중독자로서 통제를 잃고 질병의 상태로 빠지는 행위가 아니라 영국 사회와 의심스러운 주변을 매개하는 자로서 기능하기 위한 도구라 해석되곤 한다. Devin Fromm (2018), “Sherlock Holmes, Addiction, and the Price of Enlightenment: The Case of a Cautionary Tale,” *ELT* 61(3), pp. 310–332. Jesse Oak Taylor-Ide (2005), “Ritual and the Liminality of Sherlock Holmes in *The Sign of Four* and *The Hound of Baskervilles*,” *ELT* 48(1), pp. 53–70.

26 Hyungji Park (2008), “Empire, Women, and Epistemology in the Victorian Detective Plot,” 『근대영미소설』 15(1), pp. 133–156. 박형지는 이와 같은 통제가 여주인공의 순수에 기대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 안에서의 여성적 인식론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일까지 자처한 제닝스 씨는 앞서 살펴보았듯 인종적으로 타자화될 뿐 아니라 젠더 측면에서도 훌륭한 영국 신사로 분류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히스테리적인 안도”(hysterical relief)를 느끼며 눈물을 흘렸던 사건을 언급하며 “어떤 남자는 여성적 기질을 타고났다고 하던데 그중 하나가 나지.”라고 자신의 여성성을 서슴없이 인정하는, 영국 남성이라는 범주에 완전히 속하지 않는 인물이다.²⁷ 또 가장 중요하게 그는 작품 속에서 가장 확실하고 심각한 상태의 아편 의존자, 취해 있는 타자이다. 중독 물질에 관한 19세기의 문화적 규범에 따르면 제닝스 씨는 결코 추리소설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인물인 것이다.

그렇기에 이 서사에서 제닝스 씨의 역할을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 작품이 약물과 영국적 가치의 경계를 다루는 태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이 인물을 빅토리아 시기의 반문화적 시도로 의미 있게 보는 관점은 2000년대 이후 다수 등장했다. 늘 어느 정도는 취해 있는 인물 제닝스 씨를 서사의 중심에 두는 것에 대해 마크 모스만(Mark Mossman)은 콜린스가 정상과 비정상과의 이분법을 와해하고 인간들 사이의 물리적인 차이라는 사회적 범주를 해체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해석하고,²⁸ 로렌 굿래드(Lauren Goodlad)는 제닝스가 “본질화된 힌두교도들뿐 아니라 악마화된 경계적 존재들을 유토피아적으로 대체하는 상징”으로서 영국적 서사의 봉합을 돕는다고 읽는다.²⁹

27 “Physiology says, and says truly, that some men are born with female constitutions—and I am one of them!” Collins (2019), p. 361. 여기서도 제닝스 씨는 자신의 특이함에 대해 변명을 하며 생리학을 그 근거로 사용해 인간에 대한 과학의 설명을 크게 신뢰하지 않던 블레이크 씨와 대조를 이룬다. 블레이크 씨는 이 근거에는 주목하지 않고 제닝스 씨가 어떤 말투와 분위기로 “그의 눈물에 대한 비통하게 직업적인 변명”(bitterly professional apology for his tears)을 늘어놓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인다.

28 Mark Mossman (2009), “Representations of the Abnormal Body in *The Moonstone*,” *Victorian Literature and Culture* 37(2), p. 494.

29 “represents a utopian alternative to the essentialized Hindus … and the demonized boundary figures” Lauren Goodlad (2015), *The Victorian Geopolitical Aesthetic: Realism, Sovereignty, and Transnational Exper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157. 한편

제닝스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읽기들이 그의 중간자로서의 입지를 강조하며 그가 기존의 확고했던 영국식 이분법을 해체한다고 본다면 본 논문은 제닝스 씨가 경험하는 절반쯤의 타자화가 오히려 그의 과학적 지식과의 친연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제닝스 씨는 드 퀸시의 책을 블레이크 씨에게 추천하는 등 낭만주의적 인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드 퀸시가 아편의 예술적 효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개인의 창조적 활동에 활용한 것과 달리 제닝스 씨는 의학에 종사하는 인물로서 인간의 몸에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아편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는 인물이다.³⁰ 신비주의적 함의와 최신 의과학 지식이 결합된 물질 아편을 활용하는 실험은 추리의 유일한 해법으로 등장하고, 콜린스는 이 불완전한 해결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서사적 불안과 그것을 일으킨 장본인을 작품의 중심에 둔다. 이와 같은 작가의 선택은 당대의 의학과 질병에 관한 담론 발달 과정이 영국 제국의 역사 속에서 순탄치 않았음을, 또 국가 경계를 지키려는 시도가 배양한 인식론적이고 도덕적인 갈등의 역사가 길고 깊음을 드러낸다.

작품이 출판된 1868년 통과된 의약법(The Pharmacy Act of 1868)은 아편을 독약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콜린스는 이때까지도 아편의 영향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 진실이 복수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 작품의 관심은 다수의 화자로부터 서로 다른 진술을 듣고 그것을 종합해 추리하는 과정 자체를 소설의 형식으로 채택한 데서도 드러난다. 취해 있는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서술 기법 역시 하나의 도덕적 관점이

타마르 헬러(Tamar Heller)는 제닝스가 자신의 히스테리아에 대해 언급할 때조차 “스스로의 무력화되고 여성화된 지위를 직접 진단하는 남성 전문가주의의 목소리로 말한다”고 지적해 남성적 영역으로서의 “진단”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한다. Tamar Heller (1992), *Dead Secrets: Wilkie Collins and the Female Gothic*, New Haven: Yale UP “speaks with the voice of male professionalism to diagnose his own powerless and feminized position,” p. 158.

30 “deliberately described aesthetic experience in terms of drug or alcohol habit,” Colman (2019), p. 33.

나 편견에 찬 관점이 아니라 여러 인물의 서로 다른 반응을 겹쳐 놓는 방식으로 이해를 구축하려는 의식적 시도다. 이 작품에서 “취한 상태”는 일시적인 상태이면서 동시에 무엇인가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닝스는 장애 혹은 질병이 점차 담지하게 되는 과학과 미신의 이분법을 거부하는, 이 작품에 가장 어울리는 탐정이 된다.³¹

이 작품이 포착하는 의과학과 앎의 기묘한 갈등 구도에서, 그리고 새롭게 제시하는 앎의 가능성 영역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핵심 요소는 취한 감각을 느끼는 몸의 물질성이다. 의학적으로 활용되는 물질로서의 아편과 사회적 낙인의 교차점에서 질병화가 일어나고, 중독 등의 이상 상태는 상징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물질로서의 몸을 통해 사회적 낙인으로 작동한다.³² 수전 손탁(Susan Sontag)은 20세기 암, 에이즈, 결핵 등의 질병이 사회적으로 다루어지는 방식을 비판하며 “질병은 상징이 아니라는 것이 나의 요지이며, 가장 진실하게 질병을 대하는, 그리고 가장 건강하게 앓는 방법이기도 한 것은 바로 상징적인 사고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지며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라 말한다.³³ 문학 작품이 필연적으로 포함하는 상징성에 근거

31 스토다드 홈즈(Stoddard Holmes)와 마크 모스만은 “빅토리아조의 선정 소설에 나타난 장애”라는 장에서 이 자극적인 장르 자체가 여러 층위의 이분법을 교란한다고 설명하고, 이 교란을 통해 “장애야말로 선정 소설의 시학의 중심”에 있다고 말한다. Martha Stoddard Holmes and Mark Mossman (2011), “Disability in Victorian Sensation Fiction,” *A Companion to Sensation Fiction* (ed. by Pamela K. Gilbert), p. 494.

32 힝스톤은 약에 취한 것, 중독을 일으키는 것이 질병적 상태라는 함의는 빅토리아 중기 선정 소설들이 문화적 불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서 장애를 가진 몸을 활용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Kylee-Anne Hingston (2019), “Sensing Bodies: Negotiating the Body and Identity in Mary Elizabeth Braddon’s *Aurora Floyd* and Wilkie Collins’s *The Moonstone*,” *Articulating Bodies: The Narrative Form of Disability and Illness in Victorian Fiction*,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p. 81.

33 “[m]y point is that illness is not a metaphor, and that the most truthful way of regarding illness – and the healthiest way of being ill – is one most purified of, most resistant to, metaphoric thinking,” Susan Sontag (1978), *Illness as Metaphor* (2002), London: Penguin Classics, p. 3.

해 질병을 문학적으로 다루는 행위를 비판하는 것처럼 들리는 손탁의 평론을 타비사 스파크스(Tabitha Sparks)는 “건설적 조언”으로 받아들인다. 스파크스는 오직 소설만이 재현할 수 있는 질병에 관한 상상력의 중요성을 꼭 짚어 “특정 시기나 장소에 어떤 상태나 질병이 미치는 대중적인 영향”에서 찾는 것이다.³⁴ 질병이나 질병에 대한 관념, 상상력 등이 문학을 통해 다루어질 때 특히 부각되는 “집단적” 기능에 대한 스파크스의 통찰을 공유하며 이 논문은 콜린스의 소설이 “취한 상태”라는 상징적 공통점으로 엮어둔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 19세기에 특히 중요했던 인식론적 충돌이 몸의 물질성과 긴밀하게 엮여 있다고 주장한다. 상징적 미신을 넘어 인물들의 몸과 정신에 직접적으로 다른 행동과 지식을 새겨 넣는 다이아몬드 도난 사건의 구성적 진실은 “취한 상태”를 반드시 경유하고, 취한 상태는 과학의 분석 대상이면서 동시에 과학적 지식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기도 해 흥미롭다. 콜린스의 소설에서는 누군가를 설득해 합의된 지식을 만들어 낼 때의 매혹 역시 앞서 언급한 사회적이며 동시에 물질적인 “영향력”의 범주 안에서 논의되고, 추리소설이라는 장르가 소환하는 집단적 기대, 즉 과학적 앎에 근거를 둔 수사가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은 당대에 과학이 앎과 생각보다 복잡한 관계에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감춘다.

3. 의과학적 앎의 실패와 집단적 반-과학 정서의 성취

의학 지식에 근거한 제닝스 씨의 실험은 사건을 완벽히 설명하는 데 실

34 “the way that these novels configure loosely medical topics into particular metaphors expresses the public impact of the condition or disease on a particular place and time – a mediation that fiction is uniquely able to represent,” Tabitha Sparks (2016), “Illness as Metaphor in the Victorian Novel: Reading Popular Fiction against Medical History,” in Penner and Sparks, p. 140.

패하지만, 이 작품은 베린더 양이 과학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과학의 설득이 실패하는 곳에서 집단적인 반-과학 정서가 얇의 자리를 차지하는 제국주의의 인식론적 구조를 잘 보여 준다. 블레이크 씨를 약물에 취하게 해서 또 그때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제닝스 씨의 기획은 매우 영리한 과학적 실험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사회적 수행들에 관한 당대의 반-과학적인 사회 인식을 노출하는 계기가 된다. 특별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전제되는 전문가 집단이 등장했을 때 영국 대중은 더 잘 아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에게 기꺼이 상황 판단을 맡긴다. 한 예로 블레이크 씨는 약물에 대한 본인의 무지를 인정하고 제닝스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의 독자적 의견을 형성하기에 나는 아편으로 만든 약물(laudanum)의 효과에 대해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당신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당신이 맞다는 확신이 든다.”라고 말한다.³⁵ 여기서 블레이크 씨가 보여 주는 무지에 기반을 둔 맹목적 신뢰는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얇과 새롭게 부상하는 의과학의 불편한 관계를 폭로한다.

제닝스 씨는 아편에 취해 있을 때의 기억은 깨어났을 때 잊혔다가 아편에 다시 취하게 되었을 때 돌아온다는 과학적 지식을 제공하고, 이 지식은 사건 해결의 결정적 실마리처럼 제시된다. 그러나 제닝스 씨의 얇은 아편 중독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아편에 대한 실질적 이해인 한편 서사 안에서 그 과학적 효능을 입증하지는 못한다. 도난이 일어났던 밤을 재현해 블레이크의 결백을 밝히려는 과학 실험이 이루어지던 바로 그날 제닝스 씨는 이 실험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아편을 포함한 약물을 마시고 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도 블레이크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보석을 훔치러 가지 않자 초조해진 제닝스 씨는 생각한다.

35 “I am too ignorant of the influence of laudanum to have an opinion of my own [...] I can only follow your opinion, and feel convinced that you are right,” Collins (2019), p. 375.

내 경험에 따르면 이렇게 작동할 리가 없다. 하지만 아편과 관련된 것이라면 경험이 다 뭐란 말인가? 존재하는 사람 중 그 누구에게도 아편은 완전히 똑같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에게 체질상의 특이점이 있어 아편의 영향을 새로운 방식으로 느끼는 것인가? 우리는 성공 직전에 실패하게 되는가?³⁶(볼드체 필자 강조)

제닝스 씨는 자신이 아편의 과학을 이해했다고 믿는 인물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아편의 작용을 몸으로 직접 반복해 경험하며 이 사실을 확인한 인물이다. 하지만 위 인용에서처럼 경험의 개인성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물질로서의 아편을 부각하는 것은 추리소설이 제공할 것이라 짐작되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수사 및 추리의 가능성과 인간 신체가 보편적으로 작동할 것을 전제로 하는 의학적 지식의 신뢰도를 동시에 심각하게 위협한다. 다시 말해 이 부분은 아편에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개인을 가장 개성적인 개인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역설적 통찰을 드러내고, 취한 상태가 아닌 온전한 영국인으로 돌아오는 일이 오히려 무지한 집단성에 포함되는 일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아편을 경유해 취한 상태와 과학이 한 편에 서게 되면서 단순한 이분법과 합리의 위계가 교란되는 것이다.

19세기 중후반 의학과 아편의 친연성은 이 작품이 다루는 합리와 중독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이 소설에서 아편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인간의 신체에 아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장 잘 안다고 여겨지는 전문가, 즉 의사이다. 블레이크 씨에게 몰래 아편을 제공한 인물이 바로 의사 캔디 씨이고, 캔디 씨가 블레이크 씨에게 아편을 탄 약물을 슬쩍 준 이

36 “It was not in my experience that it should do this. But what is experience, where opium is concerned? There are probably no two men in existence on whom the drug acts in exactly the same manner. Was some constitutional peculiarity in him, feeling the influence in some new way? Were we to fail on the very brink of success?” Collins (2019), p. 412. (이탤릭체 필자 강조)

유는 블레이크 씨가 의학에 근거를 둔 인간 이해를 믿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전날 밤 블레이크 씨는 “약을 먹는 것은 어둠 속을 더듬거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로”라고 말해 당대 의과학이 구축해 가던 새로운 지식으로서의 입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전문가 캔디 씨는 이 보수적 태도에 직업적 양심을 품는다.³⁷ 이 갈등 구도 안에서 제닝스 씨는 의사가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을 두둔하는데 그 근거는 다름 아닌 당대 대중의 의학에 대한 보편적 불신이다. 그가 “영국에서 **아편에 대한 무지한 불신**은 하층민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요. 활동 중인 의사라면 누구나 가끔은 환자를 속일 수밖에 없지. 캔디 씨가 당신을 속인 것처럼”(볼드체 필자 강조)이라고 말할 때 과학과 합리의 상징이어야 할 의사는 오히려 속임수에 능숙한 존재로 포착된다. 다만 의사의 속임수는 과학에 대한 집단적 불신에 대응하는 “실용적인 반박”(a practical refutation)이라 표현되며, 제닝스 씨는 캔디 씨의 행동이 “끔찍한 나쁜 짓”(a dreadful mischief)인 동시에 그가 “그렇게 한 데에는 죄가 없다”(done it innocently)라고 일견 모순된 평을 내놓는다.³⁸ 이 무지와 비합리의 순환 과정에서 범죄의 진실은 어느 정도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³⁹ 『월장석』의 서사적 정점에 놓인 의학 실험이 사건 해결의 핵심적 설명으로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다.

이 서사에서 의학의 “실용적인 반박”은 흠이 없어야 할 영국 신사가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함으로써 영국의 제국주의적 수탈을 둘러싼 도덕적 위선을 교란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때 제닝스에 대해 보여주는 블레이크의 비과학적 신뢰는 블레이크가 자기 자신과 베린더 양을 지

37 “taking medicine and groping in the dark mean one and the same thing” Collins (2019), p. 375.

38 Collins (2019), p. 373.

39 “The ignorant distrust of opium (in England) is by no means confined to the lower and less cultivated classes. Every doctor in large practice finds himself, every now and then, obliged to deceive his patients, as Mr. Candy deceived you,” Collins (2019), p. 373. (이탤릭체 필자 강조)

키는 주요한 도구로 기능한다. 아편의 불가해한 작동을 근거로 블레이크의 결백을 증명하려던 실험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월장석』의 세계는 의학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영역에서 가능해지는 앎에 대한 기대가 과학적 앎에 대한 기대를 초월하는 세계다. 그리고 그 세계의 합리는 과학보다 집단적 반-과학에 가깝다. 블레이크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것은 영국 남성으로서 그가 지켜야 할 명예와 권위가 있다고 믿는 제국주의적 합의와 의사들이 과학이라 주장하는 아편의 작용을 믿지 앎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영국 대중의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욕망이다.

실로 『월장석』은 의학에 대한 집단적 반감이 만연한 가운데 의학과 과학의 관계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시기를 다룬다. 루이스 페너(Louise Penner)와 타비사 스파크스(Tabitha Sparks)는 빅토리아 시기 의학의 발전은 곧 의학이 과학이 되는 과정이었으며, 전공의들과 비전문가 대중의 앎이 경합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한다.⁴⁰ 이 맥락에서 아편이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그것이 과학의 일부로 포섭되었지만 여전히 타자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의학이 과학이 되는 과정에서 아편의 침투력은 영국 제국의 체면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콜린스는 이 혼란한 시기에 도난 사건에 대한 수사라는 임무가 주어졌을 때 어떤 종류의 앎이 영국을 사로잡는지를 보여 준다. 그의 서사에서는 “취한 상태”가 과학이 추구하는 앎의 또 다른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이 강조되며, 의학이 과학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대중의 기대나 열망과 유리되어 있는지를 집요하게 탐구한다.⁴¹

40 “The process of scientization, then, can appear to be the master plot of Victorian medicine, with a gap between the specialist practitioners and the non-specialist public functioning as its operative challenge and metaphor,” Louise Penner and Tabitha Sparks (eds.)(2016), “Introduction,” *Victorian Medicine and Popular Culture*, Pittsburgh: Pittsburgh University Press, p. 1.

41 이때 가능성이란 인식론적이고 지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예술적인 것이기도 하다. 콜린스는 “가능성에 대한 감각”(a sense of the possible)과 증독과 관련된 용어들의 사용을 연결시

『월장석』에서는 의학뿐 아니라 과학적 지식이 곧 세상에 대한 앎이라는 공식도 작동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어떤 의과학적 앎은 세상을 오히려 더 불안한 곳으로 만든다. 탈라이라크 비엘마스(Laurence Talairach-Vielmas)는 콜린스가 병리학, 퇴락, 광기, 그리고 범죄성 등의 현대적 주제들을 다루기 위해 역설적으로 고딕 장르를 활용한다고 말하는데, 특히 초현실주의적 요소들을 의학의 위협으로 대체해 시대를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한다.⁴² 이 작품에서 취한 상태의 매혹과 의과학적 지식은 둘 다 영국을 위협하는 것처럼 그려지고, 특히 후자는 개인의 경계, 몸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으로 심리적 거부감의 대상이 된다. 작품 비평에서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사건에 관한 첫 번째 증언이라는 중요한 부분의 서술자 클랙 양(Miss Clack)은 대표적으로 의학에 대한 반발심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클랙 양은 “내 과거의 경험과 사라져 간 나의 동지들에 의해 거듭 입증된 것처럼, 저 악명 높은 의학이라는 것을 행하는 자들이 나와 나의 종교적 은총의 길 사이에 끼어들었다”며 분노한다.⁴³ 의학적 지식이 자기 주변의 인물들을 살려내는 데 실패하는 것을 반복해서 목격한 클랙 양은 의학의 득세가 신의 은총에 전적으로 의지해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방식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 믿는다. 종교는 당대의 세계를 구성하는 집단적 믿음 중 가장 강력한 것이었고, 과학은 이 종교와 직접적으로 대결하는 힘처럼 단순화되어 이해되며 새로운 시대의 종교처럼 해석되기도 한다.⁴⁴ 하지만 콜린스의 소설 속에

키는데, 특히 19세기에는 미적인 경험 그리고 습관을 형성하는 약물들에 관한 경험이 미적 경험과 밀접함을 강조한다. Adam Colman (2019), p. 2.

- 42 Laurence Talairach-Vielmas (2009), *Wilkie Collins, Medicine and the Gothic*,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43 “Over and over again in my past experience among my perishing fellow-creatures, the members of the notoriously infidel profession of Medicine had stepped between me and my mission of mercy,” Collins (2019), p. 216.
- 44 이 소설이 19세기 후반 영국의 “종교의 입지”(the state of religion)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 초기 비평으로 Sue Lonoff (1982), *Wilkie Collins and His Victorian Readers: A Study in the Rhetoric of Authorship*, New York: AMS Press, p. 218, 최근 이 소설에서 드러나는 다중

서 클랙 양의 종교적 믿음이 다소 우스꽝스럽게 그려진다는 사실은 이러한 반-과학적 믿음이 그 모순과 불합리에도 꺾이지 않고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사실만큼만 중요하다.

달리 말하자면 사건을 둘러싼 그 누구도 월장석 도난 사건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서 확실하게 신뢰할 만한 앎을 제공하지 못한다. 블레이크 씨를 의과학적 지식으로 설득하는 제닝스 씨, 의학에 대한 불신에 불만을 품고 약물 지식을 남용하는 의사 캔디 씨, 아편에 취해 보석을 훔치고도 너무 쉽게 사회적 무죄판결을 얻어 내는 블레이크 씨, 그리고 이들을 의심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집안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믿고 월장석을 빼돌리는 에이블화이트 씨는 사건의 전 과정에서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그 앎의 미로에서 과학적 진실은 어떤 의미일까?

미로의 한가운데서 처음부터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보석의 현재 주인 베린더 양이다. 베린더 양은 자신의 방에 들어와 월장석을 가지고 나가는 블레이크 씨를 분명히 목격했으면서도, 즉 1년이 넘도록 답답하게 저택의 안팎에서 이어지는 추리와 수사를 확실히 끝낼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블레이크 씨에게 자비를 베풀어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인물이다.⁴⁵ 베린더 양의 선택은 훌륭한 영국 신사인 블레이크 씨의 명예를 실추시켜 곤란에 처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진실의 규명보다 중시하는 선택이다. 이미 구축된 제국적 진실, 즉 영국 남성의 도덕적 우위라는 환상에 “취한” 베린더 양은 블레이크 씨의 취중 절도 이후 에이블화이트 씨가 월장석을 따로 챙겼다는 사실을 모르면서도 집단적 합의를 따름으로써 블레이크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소설 속 추리의 정답을 맞춘 셈이 된다. 취한 상태가 진실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예를 보여 주면서

적 믿음의 세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콜린스가 보여 주는 세계 종교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드러내는 논문으로 William R. McKelvey (2019), “The Importance of Being Ezra: Canons and Conversations in *The Moonstone*,” *ELH* 86, pp. 495-523 참조.

45 “resolved to say nothing (in mercy to you),” Collins (2019), p. 444.

말이다.

중요한 것은 베린더 양이 지키려 했던 가짜 진실, 즉 훌륭한 영국 신사가 보석을 훔쳤을 리 없다는 믿음이 개인 단위를 넘어 사회적으로 작동하는 영국적 삶의 구축 방식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에이블화이트 씨가 사건 다음 날 아침 베린더 양이 블레이크 씨의 행적을 숨겨 주기로 했음을 확인하고 안도하며 새로 구성된 현실에 맞춰 행동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다. 영국의 자발적 착시, 다시 말해 체면을 중시하는 영국적 “취한 상태”에 의존해 에이블화이트 씨는 훔친 보석을 들고 유유히 저택을 빠져나간다. 베린더 양이 블레이크 씨의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실이 에이블화이트 씨에게 만족감을 주는 이유는⁴⁶ 그가 몰래 보석을 훔쳐 냈을 때 바로 지목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여 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베린더 양이 목격한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할 가능성까지 에이블화이트 씨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당대 영국에서 사회적으로 구축된 삶이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진실을 압도한다는 짐작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베린더 양은 단순히 정해진 규칙에 따라 영국적 체면을 수호하는 인물이 아니며, 과학에 대한 콜린스의 단순한 반감을 보여 주는 인물도 아니다. 자신이 관찰한 것을 배반했다고 해서 베린더 양이 과학과 무관하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반-과학의 집단성에 참여하는 일이다. 월장석의 운명이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장면 중 하나를 자세히 보면 베린더 양은 과학이 현재의 불안에 하나의 대안이 될 가능성에 어느 정도는 기대를 거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베린더 양이 생일 선물로 엄청난 보석을 받았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자 “어느 무리에서나 실수하고 의도치 않게 사람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키는” 의사 캔디 씨는 “과학을 위해”(in the interests of

46 “he also detected Miss Verinder, silently watching [him] from her bedroom, through her open door. *His own eyes satisfied him that she saw [him] take the Diamond, too,*” Collins (2019), p. 443. (이탤릭체 필자 강조)

science) 그 보석을 집에 가져가서 태워 버리게 해 달라고 “엄숙하게 간청한다”(gravely entreated).⁴⁷ 서술자는 베린더 양이 “의사의 말이 진심이고 그가 과학을 위해 생일 선물을 포기할 정도의 열정을 보이는 레이첼 양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한다. 보석에 서서히 열을 가해 증발시키겠다는, 또 그렇게 해서 귀중한 보석 보관의 어려움을 없애 주겠다는 터무니없는 의사의 농담은 이 작품에서의 의사를 우스꽝스러운 인물 유형으로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그 의사가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엄청난 불안”(a world of anxiety)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한 인물이었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열어 둔다.⁴⁸

과학을 내세우는 인물이 과학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석의 파괴를 제안하는 장면을 뒤집어보면 당시의 보통 사람들에게 과학이란 무언가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인상이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대 영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과학에 대한 인식은 과학을 업으로 삼은 의사마저 그 인식에 기대지 않고서는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 갈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편견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이다. 이 소설에서 과학(science)이라는 말은 단 네 개의 장면에서 언급된다. 그마저도 앞에서 제닝스 씨가 자신의 주장을 과학이 보증한다고 말하는 장면을 제외하면 모두 과학에 대한 불신이나 조롱을 기본으로 한다. 귀족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심심풀이로 주변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파괴할 때 집사인 베티리지 씨는 그 행위를 “장난삼아 **형편없는 과학**을 하는”(bold체 필자 강조)(dabble in *nasty science*)(이텔릭체 필자 강조) 것으로 묘사하고, 이 과정에서 영국 아이들을 교육하고 길러낸 그는 “[과학놀이를 하며] 그 아이들은 정신을 발달시키고 있다고 믿지만 실은 집안을 어지

47 Collins (2019), p. 64.

48 “we evaporate the Diamond, and spare you a world of anxiety about the safe keeping of a valuable precious stone!’ My lady [...] seemed to wish that the doctor had been in earnest, and that he could have found Miss Rachel zealous enough in the cause of science to sacrifice her birthday gift, Collins (2019), p. 64.

럽히고 있을 뿐”이라고 단호하게 평한다.⁴⁹

베린더 양은 바로 이 당시 대중의 과학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구축된 사회적 앎을 개인의 안전을 위해 정교하게 활용하는, 어떤 의미에서 인식론적으로 가장 과학적인 인물이다. 과학을 가지고 놀며 자라난 베린더 양은 결말 부분에서 블레이크 씨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밀회를 나누던 중 메리듀 부인(Mrs. Merridew)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반-과학적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레이첼 양은 집에서 곧 과학 실험으로 인한 폭발이 있을 거라는 핑계를 대며 집으로 접근해 오는 메리듀 부인을 다시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는 데 쉽게 성공한다.⁵⁰ 더 나아가 과학 실험을 피해 떠난 그 산책에서 돌아오는 길에 블레이크 씨를 마주했을 때에는 요새 과학이 많이 좋아져서 폭발 소리도 작고 냄새도 거의 나지 않는다고 능청을 부리는 여유를 보인다.⁵¹ 이때의 짧은 대화는 블레이크 씨의 “의학 친구”(medical friend)가 상황을 얼마나 잘 해결해 냈는가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된다. 블레이크 씨의 명성이 회복된 것, 그래서 베린더 양이 안심하고 그와의 결혼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의학 친구”와 과학의 발전이 불러올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⁵² 과학은 영국의 가정에 폭발음을 내거나 불쾌한 냄새를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점차 발전하고 있고, 그것을 일찍이 파악한 베린더 양은 안전한 가정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한정된 역할만을 과학에게 허용하는 영

49 “they firmly believe they are improving their minds, when the plain truth is, they are only making a mess in the house,” Collins (2019), p. 49.

50 “Mrs. Merridew instantly permitted herself to be taken by the arm, and led into the garden, out of the way of the impending shock.” Collins (2019), p. 419.

51 “Explosions, Mr. Blake, are infinitely milder than they were. ... And no smell afterwards, that I can detect,” Collins (2019), p. 419.

52 권영희의 논문은 『월장석』의 가정소설 플롯이 제국주의 로맨스 양식에 의존한다는 사실 때문에 가정소설의 담론적인 기반에 균열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권영희(2007), 「제국, 영국소설, 안식처의 상실: 윌키 콜린스의 『월장석』」, 『영미문학연구』 12, p. 28.

국적 앞의 경계 형성을 주도한다.

이 소설에서 합리적으로 형성된 분과 지식으로서의 의과학은 집단적 영향 아래 형성되는 유사-지적인(quasi-intellectual) 합의들, 영국의 반-과학적인 집단성에 언제나 패배한다. 개인의 이성적 앎이라는 규범적 기대와 역사적으로 구성된 집단의 믿음 사이의 지속되는 경쟁 구도는 착각과 오판, 광기를 언제나 동반하는 추리소설의 인식론적 기본 구조다. 『월장석』은 주요 등장인물뿐 아니라 주변 악당들까지 특정한 방식으로 범주화하려는 추동이 강한 추리소설의 장르적 전통이 확립되기 이전의 초기 추리소설에 의과학에 관한 19세기 말의 논쟁을 결합해 수사 플롯이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족감의 근간에 사실은 합리와 무관한 집단의 합의,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수호하고 자신의 가치를 위계질서의 꼭대기에 올려두려는 제국주의적 욕망이 깔려 있음을 드러낸다.

4. 나가며-취한 영국의 불안한 민족

남성 탐정들의 추리 망을 피해 베린더 양이 구축한 영국적 진실은 집단적 반-과학의 강력한 존재감을 입증한다. 19세기 중후반 영국 제국의 주요 문화적 구조 속에서 “의학 친구” 제닝스 씨가 과학적 지식은 베린더 양의 반-과학적 정서에 대한 이해와 결합할 때만 블레이크 씨를 구할 수 있다. 의과학의 객관성에 걸려 있는 시대적 기대감에 대한 콜린스의 비판은 추리소설의 관습과 과학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형성되기 이전의 앎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 주며, 집단적 반-과학의 정서를 제국의 병리로 제시한다.

반-과학적 정서의 팽배는 앞서 살펴본 과학에 대한 대중적 경계심에서도 충분히 드러나지만 과학적 사고에 대한 주요 인물들의 무심함과 그것이 구축하고자 하는 안전한 세계에 대한 권력 지향적 욕망으로도 드러난다. 결말에서 블레이크 씨는 자신과 베린더 양의 화해가 보여 준 “놀라운

속도”(extraordinary rapidity)에 감탄하며 자신들이 그 어떤 말이나 설명 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진정한 이해의 근거인 양 뽐낸다. 베린더 양이 블레이크 씨와의 재회를 들키지 않기 위해 위험한 과학 실험이라는 핑계를 댄 재치에는 생각이 미치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과학과 실험, 그를 통한 진보의 가능성이 작품 속에서 인정되는 방식은 결국 아무런 말도 설명도 없이 자연스럽게, 놀라운 속도로 영국적 가족을 이루는 것이고, 콜린스는 과학 실험과 관련된 베린더 양의 거짓말을 이 로맨스 성립의 결정적 요소로 배치해 이 구도를 더 흥미롭게 만든다.

이 가정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과학의 역할이란 아편이라는 이국의 위협을 간단한 수수께끼로 만들어 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의학 친구” 제닝스 씨가 과학적 방식으로 블레이크 씨를 도와주는 하지만, 커프 경사의 서술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블레이크 씨 본인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촌촌한 보고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6장 커프 경사의 서술에서 블레이크 씨는 합리적 개인이라기보다 영국적 가정의 안위를 수호하는 상징처럼 그려진다. 제닝스 씨는 자신이 제공하는 과학적 지식의 힘을 설득하기 위해 “공인된 원칙들과 잘 알려진 권위자들이 나의 의견을 정당화한다”고 설명하며⁵³ 자신에게 5분만 시간을 주면 “상상 속이나 나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과학**이 나의 제안을 승인했음”(볼드체 필자 강조)을 보여 주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블레이크 씨는 제닝스 씨가 들고 있는 책과 그 안의 실험적 진실들을 굳이 볼 필요는 없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이미 벗어난 운명에 만족한다.⁵⁴ 사건의 진실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증거가 눈앞에 있다고

53 “Admitted principles, and recognised authorities, justify me in the view that I take,” Collins (2019), p. 377. 제닝스 씨는 이 장면에서 실제 과학 실험의 연구 결과가 수록된 엘리엇슨 박사(Dr. Elliotson)의 『인간 생리학』(*Human Physiology*)이라는 책을 들고 있으며 그 안의 예시는 또 콤브 씨(Mr. Combe)의 잘 알려진 권위가 보증한다고 역설한다.

54 “Science sanctions my proposal, fanciful as it may seem,” Collins (2019), p. 377.

해도 그것은 베린더 집안이라는 사회 안에서 블레이크 씨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보다 중요할 수 없다.

“취한 상태”에 의존해 블레이크 씨를 성공적으로 구해 낸 이야기 『월장석』은 의과학의 발달과 추리소설의 장르적 관습이 전통적 의미에서 과학의 승리로 완결되지 않음을 잘 보여 준다. 작품 속 취한 영국에서 과학의 입지는 사건의 영국적 해결을 위한 불완전하지만 권위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설명에 그친다. 콜린스는 이 소설에서 19세기 영국의 과학 담론, 특히 인간의 신체에 관한 과학인 의학이 어떤 반-과학의 정서와 대결하고 있었는지를 탐구하며, 경험의 개인적인 물질성 앞에서 시대적 진실처럼 등장하는 과학적 지식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가를 직시한다. 이야기 내내 아편과 보석이라는 서로 다른 제국의 중독 물질이 영국인의 몸을 지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취한 상태로 만들지만, 작품 속 추리는 형식적 완성을 이룬다. 추리가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영국적 합의를 지킨다면 그 추리는 성공한 추리가 되는 사회, 그리고 사건의 해결이 곧 과학이라는 집단적 믿음이 주는 안정감을 지키는 사회를 콜린스는 그려 낸 것이다. 제국주의적 수탈로 확보한 물질적 이익을 사실상 지키지 못하고도 무엇인가를 지켰다는 믿음을 형성한 베린더 가문과 블레이크 씨의 결합은 제국의 강화 방식과 그것이 기반을 두고 있는 비과학적 인식론을 잘 보여 준다. 작품 속 보석 없는 결혼은 어떤 지적인 상태를 병적인 것으로 만드는 문화적 방어기제 안에 담긴 모순과 그 모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력하게 작동하는 19세기 반-과학적 집단성의 현현이다.

참고문헌

논저

- 권영희(2007), 「제국, 영국소설, 안식처의 상상: 윌키 콜린즈의 『월장석』, 『영미문학연구』 12, pp. 5-34.
- 조애리(2002), 「타자성에 대한 불안: 『문스톤』, 『근대영미소설』 9(2), pp. 109-122.
- Berridge, Virginia (1990), "Dependence: Historical Concepts and Constructs," *The Nature of Drug Dependence* (ed. by Griffith Edwards and Malcolm Lad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18.
- Collins, Wilkie (1868), *The Moonstone*, 2019 (ed. by Francis O'Gorm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lman, Adam (2019), *Drugs and the Addiction Aesthetic in Nineteenth-Century Literature*, London: Palgrave Macmillan.
- Conti, Meredith (2018), *Playing Sick: Performances of Illness in the Age of Victorian Medicine*, London: Routledge.
- Duncan, Ian (1994), "The Moonstone, the Victorian Novel, and Imperialist Panic." *Modern Language Quarterly* 55(3), pp. 297-319.
- Fromm, Devin (2018), "Sherlock Holmes, Addiction, and the Price of Enlightenment: The Case of a Cautionary Tale," *ELT* 61(3), pp. 310-332.
- Goodlad, Lauren (2015), *The Victorian Geopolitical Aesthetic: Realism, Sovereignty, and Transnational Exper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rass, Sean C. (2006), "'The Moonstone', Narrative Failure, and the Pathology of the Stare," *Dickens Studies Annual* 37, pp. 95-116.
- Heller, Tamar (1992), *Dead Secrets: Wilkie Collins and the Female Gothic*,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ingston, Kylee-Anne (2019), "Sensing Bodies: Negotiating the Body and Identity in Mary Elizabeth Braddon's *Aurora Floyd* and Wilkie Collins's *The Moonstone*," *Articulating Bodies: The Narrative Form of Disability and Illness in Victorian Fiction*,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pp. 77-108.
- Holmes, Stoddard and Mark Mossman (2011), "Disability in Victorian Sensation Fiction," *A Companion to Sensation Fiction* (ed. Pamela K. Gilbert), pp. 493-506.
- Lonoff, Sue (1982), *Wilkie Collins and His Victorian Readers: A Study in the Rhetoric of Authorship*, New York: AMS Press.
- McKelvy, William R. (2019), "The Importance of Being Ezra: Canons and Conversations in *The Moonstone*," *ELH* 86, pp. 495-523.
- Milligan, Barry (1995), *Pleasures and Pains: Opium and the Orient in Nineteenth Century*

- British Culture*, Charlottesville: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 Mossman, Mark (2009). "Representations of the Abnormal Body in *The Moonstone*," *Victorian Literature and Culture* 37(2), pp. 483-500.
- O'Gorman, Francis (2019), "Explanatory Notes," *The Moonston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rk, Hyungji (2008), "Empire, Women, and Epistemology in the Victorian Detective Plot," 『근대영미소설』 15(1), pp. 133-156.
- Penner, Louise and Tabitha Sparks (eds.) (2016), "Introduction," *Victorian Medicine and Popular Culture*, Pittsburgh: Pittsburgh University Press, pp. 1-8.
- Reed, John R. (1989), *Victorian Will*, Athens: Ohio University Press.
- Roberts, Lewis (1997), "The 'Shivering Sands' of Reality: Narration and Knowledge in Wilkie Collins' *The Moonstone*," *Victorian Review* 23(2), pp. 168-183.
- Sparks, Tabitha (2016), "Illness as Metaphor in the Victorian Novel: Reading Popular Fiction against Medical History," in Penner and Sparks, pp. 137-146.
- Sparks, Tabitha (2009), *The Doctor in the Victorian Novel*, Surrey: Ashgate.
- Sontag, Susan (1978), *Illness as Metaphor*, 2002, London: Penguin Classics.
- Talairach-Vielmas, Laurence (2019), *Wilkie Collins, Medicine and the Gothic*,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Taylor-Ide, Jesse Oak (2005), "Ritual and the Liminality of Sherlock Holmes in The Sign of Four and The Hound of Baskervilles," *ELT* 48(1), pp. 53-70.
- Young, Paul (2007), "'Carbon, Mere Carbon': The Kohinoor, the Crystal Palace, and the Mission to Make Sense of British India," *Nineteenth-Century Contexts* 29(4), pp. 343-358.
- Williams, Raymond (1976),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Zieger, Susan (2022), "Opium and Logistical Nightmares," *English Language Notes* 60(1), pp. 122-138.
- Zieger, Susan (2011), "Opium, Alcohol, and Tobacco: The Substances of Memory in *The Moonstone*," *A Companion to Sensation Fiction* (ed. by Pamela K. Gilbert), pp. 208-219.
- Zieger, Susan (2008), *Inventing the Addict: Drugs, Race, and Sexuality in Nineteenth-Century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ABSTRACT

Britain Under the Influence

Jung, Seohyon*

Anti-Science Collectivity as Knowledge in
Wilkie Collins's *The Moonstone*

This article explores the historical tension between emerging medical science and the collective anti-science sentiment of the British empire as depicted in Wilkie Collins's *The Moonstone*. By highlighting that “being under the influence” operates as the key to both the onset of the central mystery and its resolution, I argue that *The Moonstone* exposes the desires and failures of British epistemology, which hierarchizes different forms of knowledge and even pathologizes some in the name of science. Furthermore, the plot's reliance on the unpredictable operation of opium on the human body and the characters' tolerance of, or indulgence in, the imperfect solution of the crime demonstrate how the intellectual satisfaction of the detective genre disguises the conflict between medical knowledge and anti-science sentiments. This article thereby aims to historicize British detective fiction as a troubled colonial product that ironically banks on anti-science collectivity while the genre promotes the scientific triumph of the empire.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Digital Humanities and Computational Social Sciences, KAIST

Keywords Wilkie Collins, *The Moonstone*, Empire, Opium, Being Under the Influence, Collectivity, Anti-Science, Distrust of Medicine, Knowledge, Nineteenth-Century Detective Fiction